**주는 자가 아닌 동반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3-4)

저희 부부가 동아시아 선교 책임자로 부름받아 선교동역자로서 한국에 가게 되었을 때, 몇몇 분들이 물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에 선교사가 필요한가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회 셋이 서울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아직도 한국에 선교동역자가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으로 볼 때 한국은 선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과거 선교사는 이방 나라에 가서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미개한 이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근대식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귀한 사역이었으나 많은 선교학자들은 이러한 일방적 선교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동역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임하도록 선교지 교회와 교단과 협력하는 동역자이며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장로교는 “선교사”가 아닌 “선교동역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동아시아 교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자가 아닌 동반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선한 일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종종 저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교회의 부족한 면을 돌아보게 만드는 좋은 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지난 5월과 6월, 한국에 있는 장로교 교단들과 기독교 단체 관계자들을 초대하는 오픈하우스와 선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렇게 나이, 지위, 성의 차별 없는 자유롭고 열려있는 의견 수렴의 모임이 별로 없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더 잘 동역을 할지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부장적인 한국교회 문화 속에서 느꼈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미국장로교회가 갖지 못한 한국교회의 장점도 많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문화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일방 통행이 아니라 쌍방 통행입니다. 우리는 주는 자가 아닌 동반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명성, 김지은